

(주)동방아그로 부어공장



‘최고시설 · 정예화 인력’ 조화 고품질 제품 생산 공급

‘35년여의 연륜 · 설비 자동화 · 정예화 인력’ 어우러져 민원제로에 도전
주민 · 대학생 · 시판상 등 방문 줄이어, 부정인식 바꾸는 즉석 홍보현장

안 타갑게도 DDA 및 각종 FTA로 인한 전반적인 농업생산 감소가 결국 농약 등 농자재산업의 위축으로 연계될 것이라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시각인 듯싶다. 비단 전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이 뿐 아니지만, 보는 시각과 의지에 따라서는 작금 양상을 반전시키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다행인 것은 농약업 경영자와 관련 종사자들의 의지와 지혜가 주변 우려에 머물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 농약의 선진 제조과정 및 현장을 소개함으로써 제조환경, 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과 선입견을 해소코자 마련한 두 번째의 장(場). 백제 사비성시대의 고도 부여에 위치, 모던형 건물내에 첨단장비와 시스템이 적지 않아 완벽한 생산이 가능한 (주)동방아그로 부어공장(공장장 廉炳樞)을 찾았다.

‘최고시설 · 정예화 인력’ 통해 일신우일신

“인류 최후의 생존자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이란 말이 있습니다만, 현재 농업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내수시장 한계와 지역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 업계도 나름의 생존을 위한 블루오션을 찾아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약산업의 전도를 보는 견해가 다양하지만, 위기가 기회일 수 있는 만큼 이럴 때일수록 시설투자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원가절감을 통한 제형과 용기의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로 24년째 일선 생산현장을 이끌어 오고 있는 廉공장장의 일성이다. 그러면서 “인력수급부터 제형, 용기의 다양화 등 현재 여건을 고려할 때 시설투자는 올해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타사에 비해 지역 여건이 불리



하지 않은 만큼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하는 등 중장기적 구상도 내비쳤다.

1971년 동방농약(주)로 출발, ‘오직 농민과 함께’라는 의지와 정성으로 좋은 농약 만들기를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는 (주)동방아그로의 35년여의 이력은 곳곳에 묻어있다. 1984년부터 3년 연속 수출의 날을 맞아 ‘200만\$, 500만\$, 1,000만\$ 수출의 탑’ 상을 수상하였다. 동방아그로로 상호를 변경한 1990년에는 동탑산업훈장 수상하였고 1991년에 본사를 신축 이전한데 이어 이듬해엔 부여공장 및 기술연구소를 신축 이전하는 등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을 거듭해 왔다. 또한 2000년에는 대통령 산업포장을 2001년엔 충남기업인대회 우수기업인상을, 지난해에는 성실납세로 재정부장관상을 받는 등의 다양한 면모를 갖추고 있다.

廉공장장은 “현재 최고의 시설과 정예화 된 공장 구성원들이 있어 자랑스럽고 든든하다. 이

런 환경속에서의 최고 품질의 제품생산은 사필귀정”이라면서 “업계 최초의 과립혼연제 생산을 비롯, 11억여원이 소요된 비선택성 제초제 라인을 구축함으로써 공장 위상을 높였다”고 술회한 뒤 “전 제형을 생산 할 수 있는 15개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있어 수출 및 OEM생산 또한 가능하며 여러 외국회사들이 OEM생산을 위하여 공장을 방문하고 있다”고 은근히 자랑이다.

관리·생산1,2·품질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동방아그로 부여공장은 각각 4개동의 공장동과 원부원료 창고 및 3개동의 제품창고, 2개동의 동력동, 각각 1개동의 사무동, 후생관동, 폐수처리장동 등 대지면적이 2만5천여평에 이르며 140여명의 숙련된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연간 4만여톤의 생산이 가능하다. 실제 생산량은 1만5천여톤에 이르고 있다.

생산 자동화·환경개선 통해 우수 제품생산

廉공장장은 또 “부여공장은 10개 제형 15개 생산라인의 최신 자동화시설을 구축하고 있어 거의 모든 제형의 생산이 가능하다”면서 “신축 15년 후인 지금에 이르러서도 환경관리 측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하고 환경관리 부문에 대해 설명을 이어간다. 대기시설 3종과 수질 배출시설 5종에 해당되는 부여공장은 배출시설 관리인을 선임, 시설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대기질 관리는 여과(Bag Filter, Hepa Filter), 흡착(Carbon), 흡수 등 완벽한 방지시설을 운영하여 쾌적한 환경을 위



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수질관리는 자체 폐수처리장을 운영하여 화학적 및 생물학적 처리는 물론 활성탄 흡착을 통한 최신 정화시설을 가동, 맑고 깨끗한 처리수를 방류함으로써 금강 하천의 주변 환경을 보전하는 등 환경민원 제로에 계속 도전하고 있단다.

廉공공장장은 끝으로 농약을 보는 소비자의 우려 섞인 시각에 대해서는 “자동화된 최신 생산설비와 첨단 공정관리기술을 갖추고 제품에 정

성과 혼을 담아 생산하고 있으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제조공정으로 원가절감 및 생산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신기술 도입 및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환경 친화적인 공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생산 자동화 및 보다 나은 환경개선을 통하여 고품질을 요구하는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하고는 “그러나 농약은 농약다워야 한다.”고 전제함으로써 여운을 남겼다. 

미니 인터뷰 廉炳椿 공장장

■ 1992년 최신시설의 공장을 가졌습지만, '냄새나는 공장, 공해산업' 등 농약 제조업의 전반적 이미지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듯 한데요?

과거와 천양지차의 진보를 거듭하고 있음에도 소비자 인식의 진전이 많지 않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독 농약에 대해서는 신뢰를 보내지 않으려 합니다. 이해부족에 기인한 결과로 봅니다. 일례로 이곳으로의 공장 신축 이전 시 이웃 주민들의 반대가 적지 않았습디다. 그러나 현재는 작업자이기를 자칭할 만큼의 인식변화가 큼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학생들과 시판상, 농민들의 견학이 줄을 잇고 있으며 백문 불여일견이듯, 견학 후에는 막연히 갖고 있었던 자신들의 부정적 견해에 대해 후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보다는 적극적인 홍보를 다짐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실시한 한국방송작가 초청 세미나 및 견학과 수도권 지하철 광고 등은 이미지 제고에 적지 않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게을리 하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 주요 약제의 생산시설 및 생산능력과 함께 최근 생산약제의 변화에 대해 말씀 해 주시지요?

앞에서 기 설명드렸습디지만, 15개 생산라인에서 유액제 및 액상수화제, 수화제, 입제, 분제, 과립 혼연제, 입상수화제 등 연간 4만여톤을 상회 생산 할 수 있는 자동화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입분제 등 단순제형만을 생산했습디지만, 최근에는 입상 및 액상수화제, 입제의 생산증가와 함께 액상수화제중 제초제 원액처리제 및 약효지속형인 서방형 입제, 저농도 고효성인 설폰닐우레아계 제초제 생산이 적지 않으며 업계의 전체적 경향인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 올해 주요 계획은?

모두가 어렵습디지만, 중장기적 측면에서 시설투자에 소홀히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우선 28억여원의 소요가 예상되는 입상수화제 라인을 증설하고 최신 분쇄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력화를 위한 점보체 포장을 위하여 수용성 PVC 필름포장기를 설치 할 예정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품질개선 연구를 통하여 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받는 최고의 품질만을 생산함으로써 제2도약의 초석을 다지고 싶습니다.